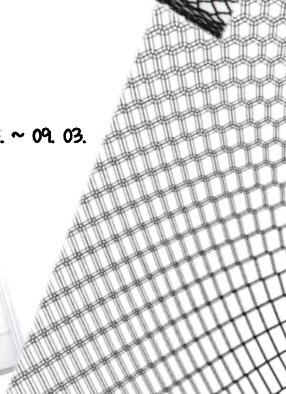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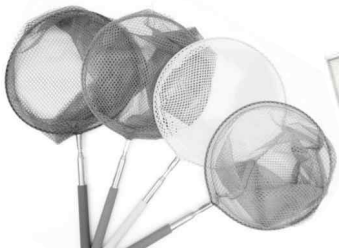


" 신비한 망 "

2021 07. 05. ~ 09. 03.



'신비한 망'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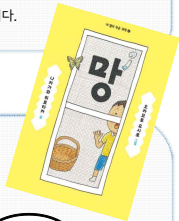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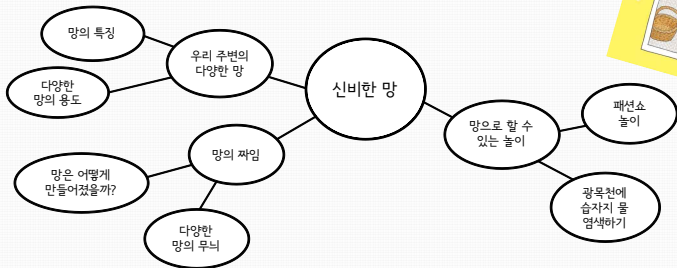
여름이 되어 얇아진 옷과 곤충을 채집할 때 사용하는

잠자리채에 관심을 가지며 친구들에게 '망'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유치원과 집에 있는 방충망, 요즘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마스크, 요리할 때 사용하는 채반 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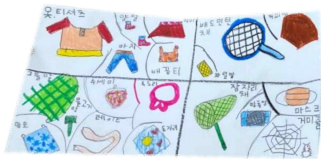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종류의 망에 대해 탐색해보며 '신비한 망'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7.05. ~ 09.03.)



"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망' 그림책의 내용을 회상해보며, 공기와 물은 통하게 하고 곤충이나 물건은 지나갈 수 없게 막아주는 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집에 벌레 안 들어오게 하는
양초망도 만들어!"



"우카메말는
온도 망으로 돼있어"

"마스크도 망으로 만들어졌을까?"

"코랑 미세먼저를 막아주니까
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잡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채도 망이야
잡자리가 잡혔는지 볼 수 있느냐?"



"집에서도 망을 사용할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망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본 친구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망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빨래할 때
세탁망을 사용하셔~"



"내가 좋아하는 이 옷도
망으로 되어있었어!"



"여름에 쓰는 모자는
몬 망으로 되어있어~"



"잠자리나 매미를 잡을 수 있는
이 채집 망으로 되어있지~"



"세탁망의 어떤 무늬를
가져오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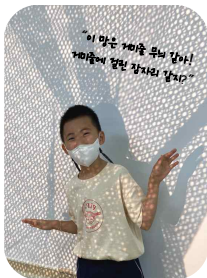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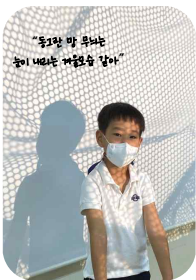
"과일나 채반을 씻을 때 쓰는
채반은 동그란 무늬의 망이네!"

◀ 망으로 되어있는 것을 집에서 찾아본 친구들이 유치원으로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 망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며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망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유치원과 집에서 사용하는 망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망을 탐색해보던 친구들이
망마다 무늬가 다르고 망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의 무늬를 자세히 보기 위해 OHP기계를 제공해주어
그림자로 크게 나타나는 망의 무늬를 관찰하였습니다.



"이 기둥 블록도 망으로 되어있어
네번난 그림자가 생겼네?"

"우리 교실에도 망으로 된 놀잇감이 있을까?"

집에서 찾은 망의 무늬를 OHP 기계로 관찰해본 친구들이
라이트 테이블에 있던 기둥블록을 OHP 기계 앞에 쌓아보며 놀이하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기둥블록도 망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라며
확신과 생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습니다.

"투명한 망에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 그림자가 생길까?"



"나는 하늘색깔 그림자를 만들고 싶어"



"실리콘도 색깔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 기둥블록도 생기겠지?"



"파란색깔 그림자가
생기면 바닷물에 쓰는
그물망 같을 것 같아!"



"망에는 어떤 무늬들이 있을까?"

집이나 유치원에서 늘 함께 하는 창문의 방충망!

방충망은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 알아보고, 방충망의 무늬를 종이테이프와 물감, 띠종이 바느질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 우리가 늘 입고 사용하는 망으로 된 옷이나 양말, 마스크, 이불 등을 만들 수 있는 실을 이용해 자유롭게 놀아하였습니다.



"실을 의자에 묶으면
의자를 꼴수 있는 줄이 돼"



"실을 손에 감으니까 장갑같이!
장갑도 망으로 만들어졌나?"



"구멍 뚫린 접시에 실을 끼우니까
거미줄이 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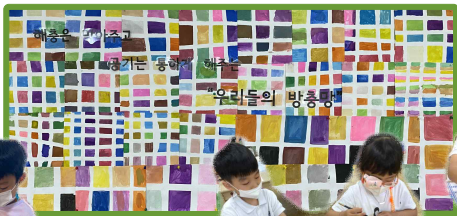


"실을 접시에 끼우니까
바느질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옷도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 실로 놀이하던 친구들은 손에 감아 보거나 여러 구슬을 꿰어보거나 구멍이 뚫린 접시에 바느질을 하거나 실뜨기를 하며 실의 특징을 경험하였습니다.

[방충망의 무늬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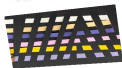
"방충망의 무늬는
네선모양인 체크무늬야"



"만들어진 네선모양에 물감을 칠하고
테이프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주머니에 테이프를 세트로 넣고,
가위로도 놓으면 방충망이야"



"칼집이 난 곳에 종이를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될까?"

"방충망은 어떤 무늬일까?"

집이나 유치원에서 늘 함께 하는 창문의 방충망!

방충망은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 알아보고, 방충망의 무늬를 종이테이프와 물감, 띠종이 바느질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띠종이를 넣었다가 빼니까
일록달록한 방충망 같아"



“망은 어떤 무늬로 짜여 있을까?”

우리가 알게 된 다양한 종류의 망의 짜임을 자세히 보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제공하였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우리의 옷이나 양말, 나무 바구니, 잠자리채, 수세미 등의 짜임을 관찰해보며 투명필름에 망의 짜임을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방죽망의
네모 무늬를 표현해야겠어!”



“망은 아주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라일이 망가지지 않게
감싸주는 라일망의 무늬를 표현할거야!”



“수세미는 포퓰포퓰한 망으로 짜여있어!
라면 같이 생겼는걸?”

▶ 광학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망의 다양한 짜임을 투명필름에 표현하고, 손전등을 이용해 멀리 또는 가까이 비춰보며 그림자 놀이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망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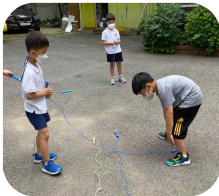
여러 방법으로 망을 탐색해본 아이들과

우리의 몸을 이용해 '그물치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친구와 손을 잡아 그물을 만들고, 물고기가 된 친구들을 잡아보며
슬기튼튼 1반 친구들이 망이 되어 즐겁게 바깥놀이 하였습니다.



▶ 친구와 손을 잡아 그물을 만들고, 그물치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들이 줄넘기를 이용해 또 다른 그물을
만들고 놀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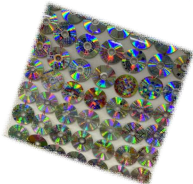
"CD에 어떤 무늬를 그려 볼까?"



"CD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망 무늬가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양말의
무늬를 그려볼래~"



- ▶ OHP기계 위에 여러 무늬의 망과 빛고구를 올려보며 패션쇼장의 배경을 꾸미고, CD를 고리로 엮어 포토존을 꾸몄습니다.

"망기둥으로 패션쇼장에 멋진 성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놀이했던 망으로 패션쇼 놀이 하자!"

그 동안 놀이했던 다양한 모양의 망을 이용해 패션쇼 놀이를 하기로 하여 원형기둥과 CD, OHP와 빛고구를 이용해 패션쇼 장을 꾸미며 패션쇼 놀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패션쇼는 어떻게 하는 걸까?”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패션쇼장을 꾸민 슬기 튼튼 1반 친구들! 패션쇼 노래도 정하고, 무대에서 할 포즈도 정해보며 신나는 노래에 망으로 된 우리의 멋진 옷을 꾸며보고 신나게 걸으며 사랑스러운 포즈도 취해보았답니다.



- ▶ 천장에 리본 줄을 달고, 레드카펫을 깔며 완성된 우리들의 패션쇼장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보며 공기가 잘 통하는 우리의 시원한 여름옷을 뽐내 보았습니다.



“빛에 비친 동그란 모양인
우리들의 CD망이 반짝 반짝 빛이네~”



“CD로 동그란 망을 만들 수 있대니
우리 대단한걸?”

- ▼ 친구들의 옷에 OHP기계에 올린 빛고구들의 색이 비친 것을 보며 옷에 염색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여러가지 색으로 염색놀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습자지로 광목천 염색하기 I]

"파란색 습자지에
파란물이 바깥쪽엔 나오고 있어"

"분홍색 습자지 쪽이를 계속
넣을수록 색이 진해져!"

"물에 담긴 습자지 쪽이를 빼면
쪽이는 어떻게 될까?"

"물에 넣은 습자지 쪽이가 으물거릴
라면 말은걸?"

"노란색 습자지를 물에 넣고
진짜 노란물이 되었어"

"어떤 재료로 염색을 해볼까?"

패션쇼 놀이를 하며 여러 색의 색깔 빛이 우리의 옷에
비추지는 것을 보며 염색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한 아이들과
어떤 재료로 염색을 해볼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미술영역에 있던 습자지가
옷에 염색되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아이들과 습자지로 염색물을 만들었습니다.



"광목천은 꼭 이불감아!"

▶ 염색할 광목천을 탐색해본 아이들과 습자지로 만든 염색물을 이용해 염색을 하였습니다.

"무가만든 습자지 염색물을 광목천에 칠하면 어떻게 될까?"

"광목천을 흔드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

망울 주제로 놀이한 슬기로운 1반 친구들...

망울 주제로 놀이하며 다양한 용도를 가진 망에 대해 알아보고 놀이하며 망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옷은 얇아지고 망의 크기는 커지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더욱 흥미있어하여 패션쇼 놀이와 염색 놀이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탐구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놀이주제였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매체들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